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유 지분 절반 증여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승계 무관… 글로벌 사업 위한 선택”

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 정면돌파 “지분증여로 본연의 사업에 집중 기업가치 관련 오해 바로 잡힐 것”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중이던 (주)한화 지분(22.65%)의 절반을 31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한화 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화는 그룹 전반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격으로 김 회장이 그룹 승계와 관련한 그간의 논란과 오해를 차단하려고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한화그룹은 이날 “김승연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증여를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행한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3조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한화그룹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시급한 글로벌 투자 실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러나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특히 한화에어로페이스는 올해 주가가 130% 상승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대규모 증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승계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주주들의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10년 후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이라는 한화에어로페이스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속하게 해외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상증자 역시 이를 위한 필수적 활동이며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페이스는 중장기적으로 약 11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유상증자로 3조 6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조 4000억원은 향후 영업 현금흐름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7.3%(1조3000억원)을 인수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양사가 방산·조선·해양 육해공 패키지 영업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화가 지난 2022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676.5%에 달했다. 20여년간 국책금융기관에서 10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큰 빛을 해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화는 인수 후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지분율 30.44%를 확보한 것은 한화오션의 신용등급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것이 한화측 주장이다. 글로벌 해양방산 시장을 공략 중인

한화오션은 주요 고객인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모회사의 신용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육상 위주 포트폴리오에 지배력이 강화된 해양방산 자회사의 역량이 더해져 시너지를 얻게 됐다. 통합 방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경쟁 업체들보다 높은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화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모-자회사 간 지배력을 강화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완료로 (주)한화와 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주)한화의 기업 가치를 낮추려 한다는 오해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로봇용 배터리 시장 급팽창… K-기업, ‘원통형’ 승부수

중 기업들 관련 시장 본격 진출 韓, 원통형 배터리 기술 고도화 “성능 최적화 등 차별화 전략 필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로봇 배터리 시장의 급팽창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개발을 넘어 로봇 완제품 생산까지 주도하고 있어 경쟁력 측면에서 격차를 좁히는 데 도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에 이어 중국 EVE에너지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며 로봇 산업계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분야의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만큼 해당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

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금융지주회사 모건스탠리는 EVE에너지, CATL,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단 4개 기업만이 이 분야의 핵심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CATL은 산업용 로봇을 직접 만들어 제조현장에 투입하는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국 상하이에 산업용 로봇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로봇팀을 구성했다. 수십명 규모의 로봇팀은 현재 로봇이 환경을 이해하는 개념 체계인 온톨로지와 제어 기술, 인간과 컴퓨터간 상호작용 알고리즘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VE에너지 또한 ‘지상-저고도-휴머노이드’ 영역을 아우르는 배터리 영역 구축을 진행 중이다.

국내 배터리사들도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SDI는 현대차·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섰다. 양사는 배터리 형태를 최적

화하는 동시에 출력과 사용 시간을 늘린 로봇 전용 배터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4년 11월 자율주행 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과 달리 중국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를 탑재한 로봇 완제품 생산까지 주도하고 있어,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로봇에 탑재될 배터리 형태가 원통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이 원통형 배터리의 강점을 내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통형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열관리,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모듈화와 실장 자유도가 높아 로봇의 구조적 설계와도 잘 맞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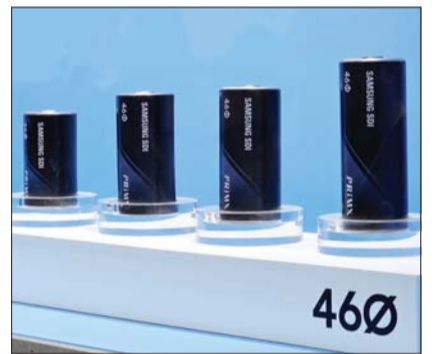
평가가 따른다.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알루미늄을 적용한 고품질 NCMA 양극재를 사용하고 고유 특허 기술인 세라믹이 코팅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삼성SDI는 46파이 배터리를 ‘4680, 4695, 46100, 46120’ 등 4개 제품으로, 지름은 46mm로 모두 같고 높이는 각각 80mm, 95mm, 100mm, 120mm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 배터리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로봇에 최적화된 고성능 배터리와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등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SDI가 지난 3월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5’에서 공개한 46파이 배터리 라인업.

/삼성SDI

삼성SDI ‘46파이’ 배터리 양산

삼성SDI가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는 46파이(지름 46mm) 배터리의 양산에 돌입했다.

삼성SDI는 최근 베트남 법인에서 4695(지름 4mm·높이 9mm) 배터리 모듈 출하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4695 배터리 셀은 천안사업장 마더라인에서 생산되며, 이를 베트남 법인에서 모듈로 조립한 후 마이크로모빌리티용(소형 이동수단)으로 미국의 고객사에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 삼성SDI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양산에 성공했다.

삼성SDI의 46파이 배터리는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와 독자 특허 소재인 SCN(실리콘탄소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수명을 늘렸으며 안전성도 확보했다. 또한 전극 끝부분을 여러 개의 탭으로 만들어 전류의 경로를 확장시키는 ‘탭리스(Tabless) 기술’을 적용해 내부 저항을 약 90% 가량 낮추고 출력을 높였다.

삼성SDI는 주요 전기차 고객들과 활발하게 46파이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추후 전기차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장인화 회장 “미래소재 중심 신사업 적극 추진”

포스코그룹 창립 57주년

장 회장, 위기극복·지속가능성 강조 “유망 사업 진입, 한시도 미룰 수 없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철강뿐만 아니라 미래 소재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인화 회장은 31일 제57주년 포스코그룹 창립기념일(4월 1일)을 앞두고 글로벌 신사업을 통한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장 회장은 기념사에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핵심사업의 시장 확장과 그룹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유망 사업 진입은 한시도 미룰 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생산성과 품질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을 개발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임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7대 미래혁신 과제 등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장 회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인도와 미국 등 철강 고성장, 고수익 지역에서의 현지

/이승용 기자 lsy2665@